



[9 8 V L C] 저녁집회 - 역사에 새벽을 가져온 지도자

[본문 / 느헤미야 1, 2 장] 이동원 목사 / 1 9 9 8

갱신과 평신도 리더의 모델

저는 느헤미야가 두가지 면에서 지도자의 모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갱신의 모델입니다. 엄격히 말해 느헤미야는 새롭게 무언가를 개척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제 1 차, 2 차 귀환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느헤미야는 그가 포를 잡혀갔던 이방 땅, 페르시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 시온으로 돌아가서 재건의 노력을 했지만 별로 진전은 없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더욱 커다란 절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느헤미야가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좌절이 있는 그 땅에 성을 쌓고 민족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합니다. 우리 땅에는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잘 안된 것, 후퇴한 것에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모델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시대가 이러한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척을 해서 교회를 새롭게 일구는 지도자도 필요하지만, baton을 이어받아 교회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지도자도 필요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저는 느헤미야가 갱신의 모델로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느헤미야는 평신도 지도자의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설교했다는 기록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설교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백성들을 이끌었다는 면에서 차라리 그는 정치가라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실패한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평신도를 훈련해 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의 한 복판에서 살고 있는 많은 평신도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한국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이 정치계, 법조계, 의료계, 교육계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할을 다 했다면 오늘 우리의 사회는 어디에 와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대가 기다리고 있는 지도자는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에 대한 바른 의식

그렇다면 과연 느헤미야는 어떤 지도자였을까요? 첫 번째로 저는 그가 역사의식이 분명한 지도자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역사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고, 역사의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과 귀는 열려있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는 멀리 떨어진 페르시아에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 조국의 역사적 현실에 대해 관심을 갖습니다. 3절을 보시면 느헤미야는 여전히 버림받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가 보인 반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는 앓아서 울기 시작합니다. 역사의 부담이 얼마나 자신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가 기다리고 있는 지도자는 바로 이렇게 깨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역사의 현장을 바라보고 있는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가진 살아있는 설교자, 그것이 바로 우리 시대가 필요로 하는 설교자입니다.

기도하는 지도자

둘째로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역사적 부담을 기도로 승화시킨 사람이었습니다. 역사가 제공한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지도자였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는 조국의 현실을 듣자마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는 적당하고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금식할 수 밖에 없는 강렬한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역사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웬지 사회의 현실을 등지고 기도원에 가서 수십 일씩 기도하는 사람을 연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참으로 성서적인 기도의 삶은 눈을 뜨고 귀가 열린 사람입니다. 안타까운 현실, 표류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의 암담한 현실을 보며 울분을 토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엎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역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기도는 펄펄 끓는 기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6절을 읽어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역사의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기도를 시작하며 그는 ‘참회’합니다. ‘나와 나의 아비 집이’라는 대목을 보십시오. 그는 내 조상들의 책임이요 정치가들의 책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책임에 대한 통감, 내 책임이라는 인식 때문에 더욱 엎드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역사의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기도를 구체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크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응답되어 암담한 현실 속에서 역사의 새벽을 가져올 수 있었던 원인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8, 9 절을 보십시오. 그중에서 ‘말씀을 기억하옵소서’라는 구절을 살펴보십시오. 부모가 아이들을 가르면서 아이들이 무언가를 요구할 때 꿈쩍 못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약속을 들고 나올 때입니다.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따라서 그의 기도는 주관적인 기도, 이기심에 근거한 기도, 정욕에 근거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의 실현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이따금 한국교회에서는 기도의 말씀을 이원화 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종종 우리의 기도가 이기적으로 흐르는 것은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경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가장 어두웠던 어둠은 빛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밝아오는 역사의 새벽, 주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기도의 삶, 그 삶을 도일하게 흠모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리더십

세 번째로, 느헤미야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리더십의 특징은 사람을 움직일 줄 아는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움직입니까?

‘사람을 움직인다’는 말과 ‘사람을 조종한다’는 말의 뜻은 다릅니다. 저는 크리스천 리더십은 철저하게 ‘사람을 조종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천 지도자들은 사람을 조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움직였던 사람은 자신이 모시고 있던 왕이었습니다. 왕의 허락 없이는 그는 고향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통해 사람을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11 절을 보십시오. 느헤미야의 직책이 재미있습니다. 그는 ‘술 관원’이었습니다. 그 자리는 왕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주는 자리였습니다. 이 정도로 왕을 가까이 모신다면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왕에게 말을 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낙달이 지나갔습니다. 그때 결정적인 기회가 왔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던 지도자였습니다. 저는 크리스천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비밀 중의 하나가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누구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 가십니까?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던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고문을 보면 아주 고집이 센 왕입니다. 게다가 이 왕은 과거에 예루살렘 성 재건을 반대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스라 4장 11, 21절을 보십시오. 아닥사스다 왕에게 탄원서가 올려졌습니다. 왕은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선불리 왕에게 말을 했다가 노여움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시도록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또한 백성들을 동원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중요한 비밀을 알았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람과 더불어 일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흔히 지도자에 대해 두가지 유형을 말합니다. 과업중심의 지도자가 있고, 사람을 중시하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저는 진정한 지도자에게는 이 두가지가 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과업을 성취해야 합니다. 이것을 배우지 못하는 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역사의 땅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통해 사람을 움직일 줄 아는 지도자를 원하십니다. 기도를 통해 사람을 움직일 줄 아는 특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준비하며 장애 극복하는 지도자

네 번째, 느헤미야는 계획할 줄 아는 지도자였습니다. 2장 4~6절을 보십시오. 느헤미야에게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그는 왕 앞에 준비된 계획을 말했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7, 8절을 보십시오, 정확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지도자의 극단적인 두가지 유형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 없이 계획하는 사람입니다. 또 한가지는 기도는 하는데 계획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주님의 영광과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위대한 계획에 도전하십시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청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역사의 때가 이르렀을 때 어떤 것을 요구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과제를 완성할 수 있었던 지도자였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반역자로 몰리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그의 앞에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지도자는 장애물을 돌파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느헤미야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선언문을 읽습니다. 6장 15, 16절입니다. 느헤미야는 시작만 하고 후퇴한 사람이

아닝쓰습니다.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그 날, 우리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제게 명하신 그 일을 제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면 그 일을 아름답게 끝내실 것입니다.

*** 출처 - 온누리신문**